

아파트는 기억이다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기록

정재호

작년 여름까지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청운시민아파트를 들락거렸다. 철거예정이었던 그 아파트에서 이미 떠난 사람들의 흔적과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의 절구를 마주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만난 풍경들은 나의 과거였고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의 현재였으며 또 그들의 미래이기도 했다.

청운시민아파트에 대한 작업 이후 나의 관심은 남아있는 다른 아파트들로 이어졌다. 내 기억 속에 있었던 아파트들을 먼저 찾았고 동사무소에 수소문 하며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의 아파트들을 찾아 다녔다. 낙산아파트가 있던 자리에는 공원이 조성되었고 청운시민아파트, 한남맨션, 삼일아파트, 잠실주공아파트는 조사를 다니던 중에 사라져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파트들이 남아있었는데 회현시범아파트, 중산시범아파트, 대광맨션, 대광맨션아파트, 수색아파트, 옥인시범아파트, 연희시범아파트, 금화시범아파트 등이 그것이다. ‘오래된 아파트는 시급히 철거되거나 재건축되어야 하는 도시의 흉물이다’라는 일반적 인식에서 벗어나 오래된 아파트가 가진 풍부한 표정과 의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상당히 많은 곳들이 아직도 훌륭한 주거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지금은 사라졌다고 여겨지는 공동체로서의 삶의 양식이 보존되고 있음을 목격하였으며, 비록 좁지만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조화와 배려라는 건축의 이상이 담긴 아름다운 공간들을 볼 수 있었다.

제인 제이콥스에 의하면 도시가 노후화되는 것은 도시의 건물이나 구조물이 오래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도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노후화되어 간다고 한다. 이 말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철거대상으로 내몰리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오래되어 사람이 살기에 위험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서울이라는 거대 자본주의 도시의 구조 속에서 더 이상 경제적 가치를 갖지 못하는 늙은 아파트들은 관리가 부실해지고 이내 황폐해지게 된다. 경제적 의미에서는 제이콥스의 견해대로 시민아파트들은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한 이 도시의 부속들에 대해 멀찌감치 보고 흉물스럽다고 말하기 전에 그 앞을 바짝 다가서서, 그리고 그 안을 거닐면서 낡은 창틀과 어지러운 베란다와 스티로폼 화단으로 이루어진 그 공간을 직접 보고 그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았으면 한다.

정재호

동시대 건축물과 환경을 형성화하는 작가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는 ‘2018 올해의 작가상’ 후보에 올랐다. 도심 재개발에 밀려가는 낡은 아파트나 도심 내 서민용 집합주거 빌딩을 세밀한 필치로 그려낸 아파트 연작 <청운시민아파트> (2004), <오래된 아파트> (2005), <황홀의 건축> (2007), <열섬> (2017)이 있고, 입체 작업으로 <아현아파트> (2006), <시민아파트를 위한 기념비> (2006), <안암아파트> (2006), <남대문빌딩> (2007) 등이 있다.

주요 내용

- 금화시범아파트와 냉천동 골목
- 중산시범아파트-한강의 기념비
- 회현시범아파트-도시의 기억과 전설
- 대광맨션아파트-아파트의 꿈
- 청운동 공원화 프로젝트

\*\*\* (중략)

아파트는 늙는다. 시민아파트들은 이제 '도시의 흉물'로 일반에게 통용될 만큼 낡아 있고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이 있으니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처벌하겠음'이라는 경고장은 그 낡은 건물을 떠나야 하는 공적, 사적 이유를 제공해 준다. 철거계획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떠난 집은 벽이 갈라지고 물이 스며들고 잡초가 자란다. 서민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한다는 야심 찬 계획으로 지어진 시민아파트들, 서울의 야산마다 전시라도 하듯 올려 세워졌던 시민아파트들은 이제 늙어버렸고 그 집을 꺼안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낙산공원에 올라 보았다.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공원 부지의 형태를 통해 어렵פות이 이곳에 서 있었을 아파트를 가늠해 본다. 공원의 가운데에 있는 전시관에는 낙산아파트의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점이 걸려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지는 낙산의 역사는 한국전쟁 이후 무허가 판자촌이었던 곳에 낙산아파트가 세워지고 그것이 헐리면서 낙산 본래의 모습을 찾았다는 짙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 기록은 낙산아파트를 실패한 역사로 기록하고, 이 산이 공원화되어 모든 시민에게 돌려졌음을 홍보하고 있었다. 낙산의 정상에 오르니 강북 시내의 풍경이 펼쳐진다. 새까맣게 뒤덮은 빌딩과 주택들 사이사이로 흰색 아파트들이 여기저기서 솟아오르고 있다. 저 풍경은 한때 낙산아파트가 보는 풍경이었을 것이고 낙산아파트를 보는 풍경이었을 것이다.

일시

2019년 5월 20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